



2면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 거점 개발 '달력' 부안 공항 마리나항 조성 업무협약 체결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음 12월 20일) 제2709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이달부터 전주시민에게 백신 접종

18세 이상 54만여명 대상

정부 접종 우선순위 맞춰

의료진부터 순차 진행

11월 전까지 완료 목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과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전주시가 2월부터 시민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달 29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화산체육관 등 2곳의 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 등을 통해 2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시작으로 11월까지 18세 이상 54만 8,000명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에 따르면, 백신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인 11월까지 완료된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자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2분기에는 65세 이상 시민과 의료기관·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된다. 이어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18~64세 성인을 대상으로,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2700여 명은 보건소 직원들로 구성된 40개 방문접종팀이 직접 방문해 접종을 실시한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은 자체 시행된다. 이외 시민들은 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달 29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화산체육관 등 2곳의 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 등을 통해 2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시작으로 11월까지 18세 이상 54만8,000명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종센터의 경우 대규모 접종과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교통 편의성이 높으며 냉·난방시설이 구비된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산체육관 등 완산구와 덕진구에 1곳씩 총 2곳이 운영된다. 시는 최대한 신속하게 접종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백신 접종을 수행할 위탁기관도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병원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할 예정이다.

백신에 대한 접종자의 선택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백신 종류별로 접종기관을 달리해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은 접종센터에서 접종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접종된다.

이와 관련 시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의료진을 포함해 약 40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우선 시는 최영규 부시장을 시행추진단장 등 완산구와 덕진구에 1곳씩 총 2곳이 운영된다. 시는 최대한 신속하게 접종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백신 접종을 수행할 위탁기관도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병원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할 예정이다.

응급상황 시 환자 이송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또 ▲접종 전 문의 ▲접종 예약관리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상담 등을 진행할 콜센터도 가동된다. 이날 김 시장의 브리핑 발표는 '전주시 LIVE'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행정과 의료진의 만반의 준비, 지역사회 전반의 철저한 대응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고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상 기자

“의료진 헌신·도민 동참 코로나19 위기극복 일등공신”

송 지사, “종식 때까지 동참해 청정전북 위상 만들자”

송 지사는 코로나19 도내 확진자 발생 1년을 앞두고 “의료진의 헌신과 도민의 동참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의 일등 공신”이라며, 도민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또, “공동체를 위한 마음으로 함께 해 준 도민들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 전북도의 방역 활동에 대해 송 지사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감염차단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했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의료진과 공무원, 도민이 삼각편대를 이루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전대미문의 위기를 잘 헤쳐올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송 지사는 “감염 초기부터 전북도는 선제적·적극적·차별화된 방역 정책으로 감염피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에 노력했다”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 ‘해외입국자 윌스톤 체제’는 전국적 방역모델이 됐고, ‘이태원클럽·광복절집회 방문자 코로나19검사’,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제출’ 등 강력한 행정명령 발동은 집단감염 확산 차단에 효과를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천지 발 1차 대유행’과 “광화문 집회 등에 따른 2차 대유행” 당시 전북은 상대적 안정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청정 전북의 위상을 지켰다. 하지만, 3차 대유행은 도내 노인시설,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며, 위기감이 커졌다. 송 지사는 “14개 시·군과 실시간으로 긴밀히 공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즉각 격상하고, 도민의 방역 참여를 호소한 결과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비인가 교육시설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불거져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만큼, 다시 한번 도민들의 적극적 방역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지사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등의 피해가 심각하고 많은 도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민생 사각지대를 보살피고,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원가 보전 정책, 농축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아픔을 덜어드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송 지사는 “도내 확진자 추이 감소, 국내 백신 공급 예정 등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실 연후로 언제든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종식의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방역에 동참해 청정전북의 위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유효상 기자

환황해 해양문화·수산경제 거점으로 육성

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올해 주요 업무계획... 공공주도 매립 등 4대 목표·18개 추진과제 제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및 글로벌 항만 도약 등이다.

▲공공주도 매립과 투자본격화로 희망의 새만금 조성
현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글로벌 경쟁

력을 갖춘 환황해권 국제협력·경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용지 내 약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착공식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새만금의 주요 간선도로인 동서2축 도로가 지난해 12월에 완공됐으며, 남북2축도로도 현재 1단계 53%의 공

률 보이며, 2023년 7월 완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새만금 물류체계의 완성기틀을 위한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등 트라이포트(Tri-port) 사업도 계획년도 완공을 위해 정상적으로 행정절차 및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건립, 고군산

군도 케이불가 설치사업은 물론, 새만금 관광명소화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명품 관광단지로 조성된다.

3GW, 6조 6천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는 제조·연구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로 세계 최고의 클러스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역 수송성 제고를 위한 지역상생방안 마련으로 발전사업에 지역주민 투자허용, 지역기업의 시공참여 확대(40%), 주요 기자재에 대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50%)를 보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추가확보

등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SK의 데이터센터, 전기차,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등 새만금 전략산업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기업들의 신속한 투자이행을 지원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동안 변화에 대한 반영을 위해 추진중인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는 4차 산업혁명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 새로운 개발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새만금 발전방향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 2면에 계속 /유효상 기자

‘브랜드 아파트’ 순창 남양휴튼

희소성·안정성·상품성 다 갖췄다

왜 순창 남양휴튼인가?

- 남향 위주 단지 배치·고급마감재 사용
- 피트니스·북카페 등 복합 커뮤니티시설 제공
- 편리한 교통부터 풍부한 인프라까지 우수한 입지여건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376번지 일원에 총 378세대 규모
건본주택은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377-3번지에 위치

